시 론

비아초교 개교 100년의 의미

박 준 수
시인·경영학박사

장성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광산구 비아동은 일제강점기 신작로인 국도1호선이 관통하는 곳이다. 그래서 근대적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비아오일장이다. 1일과 6일 장이 서는 비아장은 조선시대 말에 개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00여년이 넘은 지금도 오일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빌딩주차장이 새로 들어서고 편의시설이 추가돼 현대적 시장 모양을 갖춰가고 있지만, 대장간 터와 장옥을 비롯한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광주에서 다섯 번째 오래된 학교

원래 광산군에 속했던 비아는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광주시에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농촌 분위기가 짙게 풍긴다. 비아의 3대 명물은 비아무, 비아배, 비아막걸리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아막걸리 뿐이다. 한때 '황토무'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던 비아무는 고랭지 무에 밀려 쇠퇴했고, 당도가 높고 상큼한 맛이 일품이었던 비아배는 첨단단지 개발로 많은 과수원들이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한편, '바람의딸'로 잘 알려진 여행작가 한비야씨는 자신의 책에 자신의 이름과 닮은 '비아'의 지명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비아는 일찍이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농촌지역임에도 비교적 일찍 근대식 학교가 생겼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9월1일 문을 연 비아초등학교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광주 관내에서 공립학교 가운데 서석초, 중앙초, 송정동초, 삼도초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역사가 오랜 학교이다.

비아초교 개교 100년의 의미가 각별한 것은 학교 설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이다. 비아초교는 1921년 9월 야산을 개간해 1년만인 이듬해 9월1일에 개교했는데 이때 주민들이 땅과 건축비 일부를 보탠 것이다.

학교부지는 김해김씨 문중에서 땅 5천평(16,500㎡)을 기증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교문 입구 오른편 화단에는 비아동소학교(1938-1946년 사용했던 교명) 후원회가 세운 김해김씨 문중공덕비가 이를 말해준다.

이같은 비아면 주민의 높은 교육열은 1921년 10월13일자 매일신보에 자세히 소개됐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비아면 주민들이 교육시기를 자각하고 자녀들은 학습의욕이 왕성해 자발적으로 2천원(圓)의 거액을 모금해 공립학교 설립운동을 전개한다"는 보도이다.

비아초교는 또한 초창기 학교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진첩을 간직하고 있어 귀중한 역사자료가 되고 있다. 사진첩에는 제 1회-43회 졸업기념 사진을 비롯 교사신축과 운동회, 농촌일손돕기 등 교내 외 행사, 수업장면 등이 담겨 있어 생생하게 학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비아초교는 이러한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교내 도서실 한켠에 텃치 스크린 아카이브를 구축, 학생들이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지역민과 함께 축제로 승화되길

비아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교 정문 앞에 비아오일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시장 가까이에 학교가 있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맹모삼천지교'의 교훈처럼 장이 열린 날이면 학생들은 등하교길에 자연스레 물건을 사고파는 장면을 목격하며 장사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이같은 주변환경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2000년 이전만 해도 비아의 상권은 상당한 정도로 번성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비아청년구락부(당시 상인단체)가 나서서 극락역 인근에 시장을 개설하는 등 상권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사회통합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아초교 개교 100년은 학교만의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 학교를 졸업한 동문회는 물론이고 주민자치회, 지자체, 그리고 인근 학교까지 동참하는 지역축제로 승화되어야 한다.

비아초교는 이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과 더불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알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김기선 총장도 지역사회 협력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社 說

광주 기초의회 의정활동 베일에 가려져선 안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 가운데 생중계 시스템을 갖춘 곳은 남구가 유일하다. 북구의회는 이번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동·서·광산구는 여전히 관련 논의조차 없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것이다. 알 권리 보장은 지방자치시대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 해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갓 시작한 4년의 임기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들리는 것 아닌가.

남구의회는 본회의 생중계 망을 구축해 올해 2월 283회 임시회부터 송출하고 있다.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진행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본회의만 생중계하는 대신, 상임위원회별 활동은 영상회의록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 구보인 '남구 이야기'를 동사무소와 아파트 등에 배포해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북구의 경우 제9대 개원 전 의회 발전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한 결과 '생중계 도입'을 발굴했다.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중계 대상으로 검토 중으로 추경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정활동 정보를 오픈하도록 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과 함께 권한 및 자율성 확대을 도모하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록, 의원 역량 제고, 개인별 보고회 개최 현황 등을 담고 있다.

민의의 대변자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공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책무다.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의정 감시·견제 역할도 가능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생중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원들은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길 바란다.

힐링 휴식처로 각광받는 전남 산림휴양시설

전남 도내에는 휴양림 15개소, 치유의 숲 8개소, 숲속야영장 1개소, 걷고 싶은 명품숲길 12개소 총 48㎞ 구간이 운영되고 있다. 자연휴양림 가운데 광양 백운산은 치유의 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보성 제암산은 짚라인, 모험(어드벤처)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 체험시설과 더불어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장을 오픈했다. 여수 봉황산·신안 다도해·완도수목원은 아름다운 바다와 숲을 동시에 조망 가능해 유명세를 타고 있다.

치유의 숲으론 장흥 정남진은 울창한 편백숲에서 피톤치드 향기와 함께 톱밥 산책로 맨발 걷기, 명상과 체조, 아로마 오일 방향제 만들기로 여행객을 유인하고 있다. 나주 빛가람·화순 만연산·고흥 팔영산·땅끝해남 등에서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명품숲길은 진도 첨찰산, 해남 두륜산 장춘, 목포 고하도, 구례 천은사 등이 손꼽힌다.

각기 개성 있고 매력 넘치는 전남 산림휴양시설이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수려한 자연 속에서 숲의 매력을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으로 올 들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100만여명이 찾았다고 한다. 전남도는 도시민들에게 온 가족이 어울려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인생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치유시설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용을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하면서 주목받는 숲속야영장의 경우 올해 50억원을 투입, 광양, 순천, 화순, 무안, 완도, 장성 등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찾고 싶은 휴양지로 전남의 가치가 조명받고 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발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인파가 몰리고 있다. 7-8월 성수기, 시원한 계곡과 바다를 누리는 최고의 피서 명소로 각광받는 중이다. 온라인으로도 예약이 가능,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을 계속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기 고

생태전환마을공동체 조성으로 만드는 '들녘 학익진'

류 동 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한산-용의 출현'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다. 무더운 여름 시원해 보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이순신 장군이 펼치는 우직한 결단의 전술 '학익진'.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빙의하여 필자도 문구사에서 붓펜을 하나 샀다. 붓으로 들녘에 학익진도를 만들 비젼을 정성스럽게 그려 본다.

식량안보의 위기, 환경과 국민건강 파괴의 위기로부터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먹거리의 병'의 깃발을 들고, 도시농업 현장에서 새벽에 예초기를 들고 풀을 베고 호미질을 하면서 항상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마케팅 전략에 목말랐는데 바로 '학익진'을 찾은 것이다.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의 들판에서는 개구리나 벌레들이 많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단지를 보면 학이 많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실제 친환경 농업지구의 성지로 불리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들녘에서는 학의 군무가 장관이다. 바로 광주광역시 내 농촌동 들녘에 실제 날아다니는 학들의 군무가 펼쳐진다면 그것이 가져올 상징적인 친환경 생태마을의 효과가 소비자들과 관광객들에게 클 것인데, 그 형상을 '들녘 학익진'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농촌동 들녘에 '생태전환마을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에서 농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광주시 농촌동 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또 땅도 구하기 어려우며, 집을 짓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골마을에 들어가도 외톨이가 되기싶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 내 농촌동 지역에 20가구-50가구 정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농촌형 공동주택'을 짓고, 바로 그 앞에 모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텃밭정원을 공동체 농장으로 조성한다. 팜파티장, 농기구 보관소, 창고들은 공유공간으로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전기차충전소를 많이 배치해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공동주택 주변에 논과 밭을 활용해 현지농민들과 함께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한다. 바로 생태전환마을 앞에 다양한 친환경 농업이 펼쳐지고, 바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면서 직거래로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를 한다. 그리고 현지 농민들과 협력해 공동체 농산물가공공장도 만들고, 도시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매도 하고, 농촌체험마을도 만들어 가는 6차산업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친환경 농업단지는 직접 보면서 신뢰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소비처를 만들어 내면 성공을 할 수 있다. 바로 광주시내 농촌동에 이런 생태전환마을공동체를 많이 만들어 가면 광주시내 전체 들녘을 친환경 농업단지로도 만들 수 있고 '학익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내 농촌동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은데, 택지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를 선정하여 택지에는 공동주택을 만들고 개발제한구역에는 텃밭정원을 조성하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지자체가 광주도시공사나 LH와 협력하여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 '생태전환마을공동체'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성공모델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면 민간도 나서서 이러한 모델이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학익진은 찾았는데, 거북선은 무엇으로 할까? 친환경 농법에는 오리농법, 메기농법, 우렁이 농법이 있다. 논에서 오리와 메기가 헤엄쳐 다니면서 흙탕물이 일게 해 풀이 안나게 만든다. 논에서 헤엄쳐 다니는 오리와 메기에서 필자는 '거북선'을 상상한다. 우리 마음 속에 깊게 쌓인 먹거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친환경 생태 건강 먹거리의 돌격선은 바로 댭댭거리며 논에 헤엄쳐 다니는 오리와 메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꿈도 봉화에서 오리농법으로 물을 살려 개구리와 가재를 잡는 추억을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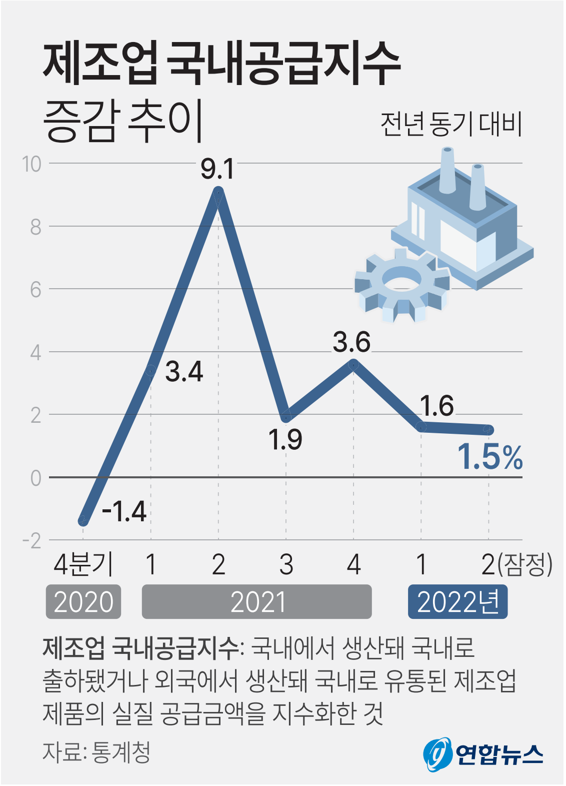
이 학익진 진법은 광주광역시 내 농촌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광주 근교의 담양, 장성, 화순, 나주, 함평에서도 농촌형 공동주택과 텃밭정원을 함께 조성하면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래픽 뉴스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1.5% 늘어…수입 비중 역대 최대

올해 2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늘었다. 전체 제조업 제품 공급 가운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컸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12.7로 작년 동기(111.0)보다 1.5% 증가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 동향을 보여준다. 공급지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분기 국산 공급은 1.4% 줄었으나 수입이 8.6% 증가했다. 국내 공급 중 수입 비중은 1년 전보다 2.0%포인트 상승한 30.7%였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로 지난 1분기(30.7%)보다 소폭 커졌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공급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하며 4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자제품(15.5%)은 D램 수입 증가, 의약품(17.1%)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수입점유비로 보면 최종재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6%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재(30.8%)가 2.5%포인트 오르고 자본재(37.8%)는 보합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의 필요성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옥상에 가본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이다. 화재 시에는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대부분 옥상으로 대피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화재 시 주요 피난처 가운데 중 하나이며 늘 개방돼 있어야 하는 옥상 출입문의 대부분이 방범과 사생활 보호, 자살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폐쇄돼있는 곳이 많다.

2020년 12월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옥상 출입문 폐쇄로 인해 2명이 옥상 계단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옥상출입문이 개방돼있었다면 생명을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례는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옥상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개폐장치가 작동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원리이며 신속한 대피를 도와준다. 이러한 피난기구가 포함된 시설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박광윤·담양소방서 담양119안전센터장〉

에어컨 실외기 화재, 작은 실천으로 예방

여름철 에어컨 사용은 우리를 불볕 같은 더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지만 부정확한 지식과 무관심 등으로 잘못 사용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1천168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상가 건물 밖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안 영화관에 있던 5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사고가 보도된 바 있다.

화재 원인은 접촉불량·전선 노후화로 인한 단락 등 전기적 요인이 75.4%로 가장 높았고 담배꽁초 등 부주의(8.6%)와 과열 등 기계정 요인(8.1%)이 뒤를 이었다.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벽과 10㎝ 이상 거리를 이격해 사용한다. 둘째, 실외기 주변의 먼지는 자주 제거하고 낙엽이나 쓰레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실외기 주변에서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방치하면 안 된다. 흡연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며 실외기 전선 연결 부위 결합을 위해 사용한 절연테이프나 연결 부위의 손상 여부 등을 체크한다. 전선이 낡거나 벗겨지면 제조업체 등의 전문가를 통해 교체하도록 한다. 소음이 심할 때도 곧바로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정승철·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